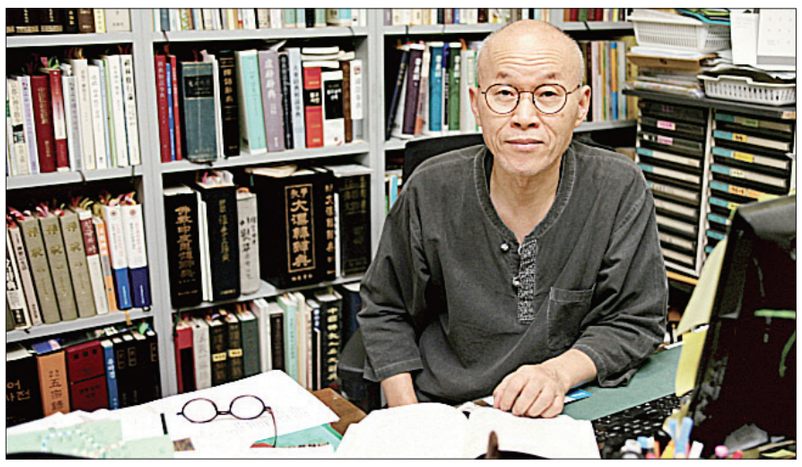
‘꽁트’와 만나니 불교도 재미있네



불교 지식 꽁트
윤창화 지음
민족사 / 9500원

어렵기만한 불교 용어들을
꽁트, 친절한 해설로 접근
읽다보면 불교지식이 ‘쏙쏙’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삼매, 해탈, 할, 삼독, 일체유심조….

불교의 중요한 용어들은 그냥 말만 들어도 어렵다. 때문에 사람들은 불교를 어렵다고 한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가 한자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개념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불교’라는 어려운 개념에 ‘꽁트’라는 일단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장르가 만난다면 어떨까?

〈불교 지식 꽁트〉는 불교계 대표 출판사인 민족사의 윤창화 대표〈사진〉가 불교의 중요한 용어, 언어들에 대하여 70년대에 유행했던 ‘꽁트’라는 장르를 통해 불교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그냥 말만 들어도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어로 된 글로 읽는다면 그 의미가 확연히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꽁트를 끄집어 냈다.

꽁트는 인생의 순간적 한 단면을 예각적(銳角的)으로 포착, 표현한 가장 짧은 소설이다.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글 속에 사물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압축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지 · 유머 · 풍자가 있다. 그래서 꽁트를 보다 보면 웃음이 터지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혼이 나 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해를 돕는다.

“무아는 나(我)란 없다는 뜻이다.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五蘊無我, 오온은 무아), 제법무아(諸法無我, 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오온무아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색 · 수 · 상 · 행 · 식 오온에는 항구적인 실체로서 ‘나(我)’,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我空]는 뜻이다. 제법무아는 법공(法空)으로 나를 포함한 만물 역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 출신인 윤창화 저자는 1965년 오대산 월정사로 입산, 약 13년간 출가 생활을 했다. 8년 동안 월정사 조실 탄허 스님을 시봉하면서 학문의 세계와 만났다. 1980년 불교 전문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창화’는 탄허 스님으로부터 받은 수계명이다.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분에 선정된 〈당송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선불교〉〈왕초보, 선 박사 되다〉 등 선(禪)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 저자는 “선(禪)이야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날카롭게 뚫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선과 유머를 통한 지식 전달인 꽁트와 잘 통한다고 하겠다.

책 속의 밑줄 긋기

● **고(苦)**
남편의 외박질
아내의 춤바람
끝도 없이 떨어지는 빚투 주식이다.
불면증 환자의 기나긴 밤
대입에 낙방한 고3 학생의 얼굴
직장에서 쫓겨난 40대 가장의 뻥 뚫린 가슴이다.
아, 인생.

∵ 고(苦, 괴로움) - 불교에서는 일체(一切)는 개고(皆苦)라고 한다. 또 생로병사 4고(苦)에, 애별리고(愛 別離苦,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고통), 원증회고(怨憎會苦, 대척 관계와 만나야 하는 고통), 구부득고(求不得苦,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데서 겪는 고통), 오음성고(五陰盛苦, 욕망과 불만족에서 겪는 고통)를 합하여 모두 8고(苦)라고 한다.

불교의 목적은 이 고(苦)에서 벗어나자는 데 있다. 그리고 일체개고가 시사하는 것은 삶은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세계를 성취하라는 것이다. –18쪽

● **번뇌**
15세 소녀의 여드름
아! 이것만 없다면
세상은 모두 내 것인데.
진수성찬이 가득한 식탁
이럴 때는 배가 하늘만 했으면 좋겠다.
번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정신 영역
고상함과 천박함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 번뇌(煩惱) - ‘잡념(雜念)’, ‘잡생각’, ‘공상’, ‘쓸데없는 생각’ 등을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근심 · 걱정 · 번민 · 갈등 · 욕망 · 욕심 · 망설임 · 불안감 등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을 모두 번뇌라고 한다. 번뇌는 육식(안 · 이 · 비 · 설 · 신 · 의)이 그 대상인 육경을 만나서 발생한다.

눈(眼)으로 사물을 대하면 호오(好惡)의 차별이 생기고 소유욕 · 욕망 등을 위해 애를 쓴다. 여기서 번민 등이 발생한다. 번뇌를 퇴치하는 방법에는 화두, 위빠사나, 염불 · 독경 · 사경 · 경전 탐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불교의 모든 경전과 법문은 결국 이 번뇌를 다스리는 가르침이다. 번뇌가 다하여 없어진 상태를 해탈이라고 한다. –84쪽

만다라와 함께 떠나는 내면 탐색 여행



만다라 명상 컬러링북
임시연 지음
담앤북스 / 1만6800원

‘만다라(Mandala)’는 산스크리트어의 ‘만다(Manda)’와 ‘라(la)’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다. ‘만다’는 마음의 중심, 본질이라는 의미이고, ‘라’는 완성하다, 공간화한다는 의미다. 결국 ‘만다라’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표현된 그림, 도상, 공간 등을 뜻한다. 현대에 이르러 만다라는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에 의해 본격적으로 심리치유와 연결됐다. 그리고 만다라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명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실제 심리치료 현장에서 그 치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다라 명상 컬러링북〉은 창의적인 만다라 도안과 흥미로운 설명을 통해 독자가 직접 내면 탐색 여행을 떠나도록 안내하는 컬러링 심리치유서다. 단순히 색칠만 하고 끝나는 다른 컬러링북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각각의 의미가 담긴 만다라를 색칠할 때 얻는 심리치유 효과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장 중간중간에 수록된 실제 심리치료 사례와 부록의 만다라 리딩법을 통해 독자들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만다라의 공간은 깨달은 마음자리에서부터 작고 볼품없는 마음 자락까지 모두 받아안습니다. 그 속에는 가능성을 품은 특별함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는 사라짐이 함께 있습니다. 만다라는 규정하지 않기에 치유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 서문 중에서

임시연 저자는 “초보자를 위한 기본적인 컬러링 기법부터 시작해 한 달 동안 만다라와 함께 심리치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서 “책에 소개된 47가지 다양한 만다라가 지닌 명상 효과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색칠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직접 만다라 도안을 그리는 작업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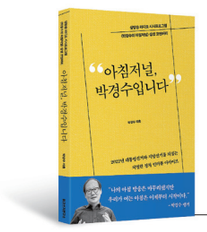
〈만다라 명상 컬러링북〉과 함께 소중한 내 마음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만다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

▲임시연 저자는…

미대를 졸업하고 작가를 꿈꾸던 시절 미술치료를 공부하면서 만다라를 처음 만났다. 30대를 지나 인생의 큰 고비가 찾아왔을 때, 만다라를 통한 내면 작업을 통해 강렬한 자기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다. 무의식이 발현된 만다라 작업 경험은 작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를 졸업하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에서 불교상담심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만다라에 담긴 치유의 힘을 믿으며 만다라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만다라심리연구소’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긴 빛을 밝혀주는 만다라 명상 지도사의 길을 걷고 있다.

임은호 기자

前방송기자가 전하는 정치 · 방송가 막전막후



“아침저널, 박경수입니다”
박경수 지음
읽고쓰기연구소 펴냄
1만6800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수입니다.”

BBS불교방송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 불자와 국민들에게 시사정보를 전했던 프로그램 〈아침저널〉의 앵커 박경수 前 BBS불교방송 보도국장(現 강릉영동대 교수)이 이번에는 작가로 돌아왔다.

박 前보도국장은 시사프로그램 앵커로서 아침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한 만 4년여의 시간을 개인적인 서사와 결합하여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주요한 이정표가 된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의 의미를 톺아보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포문을 열 책을 직접 기획하고 집필해 세상에 내놓았다.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유력 인사들과의 인터뷰가 어떤 정치적 파장과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당시 언론보도를 토대로 비교적 상세히 그리고 있다. 특히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던 저녁 만찬의 비화, 그리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의 당내 경선, 여야 후보간 경쟁적 인터뷰 공방이 담겨 있다. 우상호 vs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토론회를 직접 진행하면서, 오세훈 · 나경원 등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개별 연쇄 인터뷰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눈길을 끈다. 대세를 반전시킬 수 없었던 민주당 후보의 본질적 한계와 함께 나경원 후보 반발에 인터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오세훈 후보와의 일화가 당시 국힘 경선의 치열함을 보여준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인터뷰 영향도 담겨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의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던 아쉬움과 이재명 후보와의 대선 직전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특히 2007년 BBS 법조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김만배와의 첫 만남과 10년 후 2017년 다시 만났을 때의 느낌과 일화는 그로테스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유은혜 前 부총리, 우상호 의원, 고 노무현 前 대통령, 배금자 변호사,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배종찬 여론조사전문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지원 前 국정원장, 박홍섭 前 마포구청장 등 정치인 법조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인터뷰이들과의 인연이 시나리오처럼 그려져 있고, 고 김근태 장관의 딸 병민 씨와의 과거 인터뷰 전문과 함께 과거 칼럼들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애쓰는 현직 언론인들을 격려하는 최근 글도 실었다.

끝으로 〈박경수의 아침저널〉이 만들어지는 생생한 과정에 대한 당시 메인 작가의 글이 실려 아침방송의 치열함과 생생함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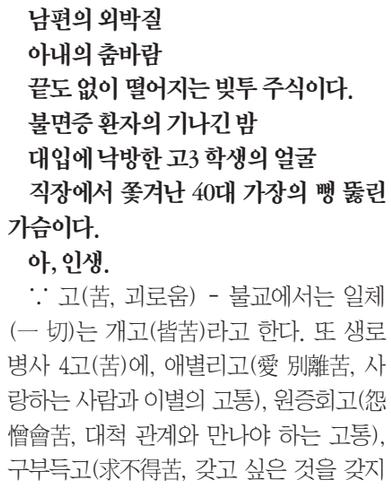
저자는 “치열했던 아침 시사프로그램의 얘기들을 정리하고 싶었다”며 “프로그램 성격상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앵커와 제작진이 중립을 지키며 뚝심을 갖고 버틸 수 있도록 시청자, 청취자들이 힘이 돼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
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글 윤창화 | 204쪽 | 9,500원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선불교》, 《불교 사자성어》 등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원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